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2013년 3월호



되찾은 양의 비유

시작성가

진행자 성가 118장 ‘골고타 언덕’ 또는 518장 ‘선한 사람 아흔 아홉’을 부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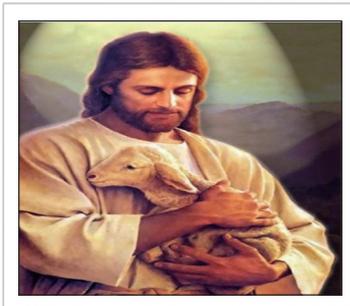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 우리의 삶에 희망을 주시는 주님, 저희 마음을 열어주소서.
- 저희를 잊지 않으신 주님, 이 시간 당신께서 함께 해주소서.

삶의 이야기

진행자 아래 사진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나누어 봅시다.



실종노인을 찾습니다

○ 인적사항
- 성명: [redacted]
- 실종일시: 2018.07.20(18:00~22:00)
- 실종장소: 남양주시 교북동 역으로 대명동육포도

○ 연상자의
키 170cm, 가늘은 얼굴, 내이리 갈색유리니, 황태양동화 착용, 허벅지 백안 안경, 왼쪽 구두가 왼쪽 나갑

○ 실종개요
장기 병시 간소에서 약수림에 간다고 나간 후 지금까지 찾지 못하고 있음

연락처
- 남양주경찰서 강력4팀 : 031) [redacted]
- 남양주경찰서 여성청소년계 : 03 [redacted]
- 전국 국민없이 112, 112

남양주경찰서

강아지를 찾습니다



이름: 켈마/나이: 7~8세/11kg
비글 여아/덩치가 큼/갈색점박이
성대수술,중성화수술 함/이름표 착용
5월 16일 아침 7시 포천시
번지에서 집을 나갈

사례금 50만원

010- [redacted]
010- [redacted]
010- [redacted]

하느님 말씀

진행자 어느 분이 루카 복음 15장 4~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한 마리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광야에 놓아둔 채 잃은 양을 찾을 때까지 뒤쫓아 가지 않느냐? 그러다가 양을 찾으면 기뻐하며 어깨에 메고 집으로 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나 빠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 하고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아흔아홉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의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진행자 1. 자신의 마음에 와 닿은 구절이 있다면 왜 그런지 나누어 봅시다.
2. 내가 하느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시절의 삶의 느낌이나, 아니면 하느님을 깨닫고 되돌아오게 된 계기가 있었다면 그에 대해 이야기 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당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다면, 당신은 갑자기 당신의 인생이 아주 특별한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당신은 짧은 시간, 20년, 40년, 80년 동안 당신이 하느님의 사랑 받는 자녀임을 발견하고 믿기 위해 이곳에 보냄을 받았음을 의식하게 될 것이다.

시간의 길이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이 하느님의 선

예수그리스도와 함께

택받은 자임을 믿기 위해 그리고 그다음으로 당신의 형제자매를 역시 서로에게 속한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들딸임을 알도록 돕기 위해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

당신은 당신과 이웃들 사이에 놓인 장벽을 허물기 위해, 또한 치유하기 위해 보냄을 받았다. 두려움에 기초해서 세워진 모든 구분, 분리 그리고 장벽이 있기 전에 하느님의 마음과 가슴에는 하나 됨이 있었다. 당신은 그 하나 됨으로부터 잠시 동안 이 세상으로 보냄 받았다.

- 〈영성의 길〉 중에서

- 진행자 1) 나는 내 인생에 있어서 특별한 존재임을 깨달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2) 나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서로 얘기해 봅시다.

기타토의

소공동체 모임에서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정합시다.
(소공동체의 활동 및 여러 가지 사항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마침성가

진행자 성가 118장 ‘골고타 언덕’ 4절 또는 성가 26번 ‘이끌어 주소서’를 부릅시다.

궁금
했어요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신앙은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음과 같은 일곱 특징을 지닙니다.

- 신앙은 순전히 하느님의 전적인 선물이며, 우리가 진심으로 그것을 청할 때 얻게 됩니다.
- 신앙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 인간이 하느님의 초대에 응할 때, 신앙에는 인간의 자유 의지와 명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 예수님이 신앙을 보증하시기 때문에 신앙은 전적으로 확신할 만합니다.
- 신앙이 사랑으로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불완전합니다.
-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주의 깊게 경청하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살아 있는 관계에 머문다면 신앙은 성장합니다.
- 신앙은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기쁨을 미리 맛보여 줍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53-165, 179-180, 183-184]

많은 사람들은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알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말에는 전혀 다른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스카이다이버가 비행장 직원에게 이렇게 묻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낙하산은 확실하게 접어놓으셨나요?” 이에 대해 비행장 직원이 “아마 그럴 걸요.”라고 성의 없이 대답한다면, 스카이다이버는 이 대답에 만족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친구에게 낙하산을 접어 달라고 부탁한다면, 같은 질문에 친구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물론이지. 내가 직접 접었으니까, 믿어도 돼!” 그러면 스카이다이버도 “그래, 널 믿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앓을 훨씬 뛰어넘는 확신을 뜻합니다. 이러한 믿음이야말로 아브라함을 약속된 땅으로 이주하게 한 믿음이고, 순교자들을 죽음의 순간까지 견딜 수 있게 한 믿음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지탱해 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은 인간 전체를 사로잡는 믿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사랑으로

- 여좌동성당 1구역 6반 -

저희 여좌동성당 1구역 6반은 진해 여좌동에 있는 180세대 규모의 대광아파트 단지 내 18세대입니다. 그리 크지 않은 아파트 단지라 저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기도 하고 때론 삼삼오오 모여서 세상사는 이야기도 하고 음식도 함께 나누는 등 여느 친인척보다 더 가깝고 정겨운 모습이 자주 연출됩니다.



우선 저희 소공동체가 얼마나 축복받은 곳에 있는지 소개 겸 자랑을 하고자 합니다. 아파트 정문에서 약 30미터만 가면 드넓고 아름다운 정원(벚꽃으로 유명한 여좌천과 로망스 다리)이 저희를 항상 반가이 맞이하고, 테크로드를 따라 약 20분만 걸으면 내수면 연구소 산책로가 있어 기도와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롭고 큰 축복인지요!

그럼 저희 소공동체의 내부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주거 환경적인 영향인지는 몰라도 형제·자매간의 친교 모임이 일상에 녹아 있고 그 때문에 상호 간의 친밀감도 굉장히 높으며 생동감이 넘쳐 난답니다.

특히 10여년을 저희 공동체에서 함께 하다 타지 발령 때문에 헤어졌다가 다시 저희 공동체에 합류한 스테파노, 요셉피나 부부의 동해생활 이야기로 더욱 생기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 풀어야 할 문제가 없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소공동체 활동에 자매님들은 적극적이지만 형제님들의 참여율은 저조한 상태이며,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계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신앙의 해를 맞이하여 소공동체의 진정한 직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다 함께 돌아보면서 생각은 크게 하되 행동은 작은 것부터 실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부부가 같은 신앙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외곽 교우 권면, 냉담자 회두 및 예비신자 확보, 모두 함께하는 소공동체 활동”으로 우리 모두 스스로 길라잡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의 이런 다짐이 기도와 행동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도하면서 함께해서 좋고 모두를 더하면 7로 변해 행운이 가득한 저희 1구역 6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키듯 부디 저희 모두가 이 소공동체에서 오래도록 함께하며 주님 안에서 참 평화와 사랑이 충만하길 빌어 봅니다.



〈여좌동성당 1구역 6반원들〉

시작성가

출석확인 및 인사나누기

1단계 주님을 초대한다.

“한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복음(말씀)을 읽는다.

“... 복음 ...장을 펴 주십시오.”

“어느 분이 ...절부터 ...까지 읽어 주십시오.”

“다른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3단계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큰소리로,
세 번 선포해 주십시오.”

“어느 분이 본문을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4단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3분 동안 침묵하며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합시다.”

5단계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6단계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눈다.

“지난 주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이번 달)에 해야 할 활동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무엇을 할 것입니까? 누가 할 것입니까? 언제 할 것입니까?)

7단계 자유롭게 기도한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소공동체 기도 및 영광송